

2021 DMZ 포럼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2021.5.21(금) ~ 22(토) | www.dmzforum.or.kr

[특별세션 Ⅲ : 풀뿌리로부터 국제연대까지, 여성들의 평화를 위한 노력과 제안]

나리나 평화공공외교협력단

'DMZ FORUM 2021: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는 지난 21일부터 22일 이틀간 개최되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논의와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적 차원에서 평화와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서 기획되었다.

특별세션3 '풀뿌리로부터 국제연대까지, 여성들의 평화를 위한 노력과 제안'은 22일 오후 2시부터 80분 동안 진행되었다. 이 세션은 여성들의 노력과 활동사례를 통해 국제사회 모두가 연대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실천과 전략을 살펴보고 경기도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6개의 발제와 질문 및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하였다.

여성평화운동 네트워크 조영미 집행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그는 전 세계 여성들이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Korea Peace Now!' (코리아피스 나우)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였다.

다음으로 특별 참석한 경기도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경기도의 핵심가치는 평화라고 하면서 오늘 논의 안을 경기도의 중요한 정책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WCDMZ(위민크로스디엠지) 크리스틴 안 사무총장이 WCDMZ 6주년의 의미와 초국적 여성 평화운동의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발제하였는데 그는 안보에 대해 여성주의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한반도 평화구축 프로세스에서의 여성 리더십의 중요성을 논하면서 WCDMZ, 한국전쟁의 종식을 옹호하는 'Korea Peace Now!'의 전략을 소개하였다. 정책결정권자들과의 접촉면 넓히기, 풀뿌리 공동체와의 협력, 언론의 인식변화, 평화우선접근법을 주요하게 제시하였다. 또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가시화 하는 측면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미국 바바라 리 하원의원은 영구적인 전쟁종식과 군비축소 관련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그는 전쟁은 존재하면 안 되며 이를 위한 군사비축가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비용인 보건, 주택정책같이 필요한 곳에 가야할 예산이라 강조하였다. 또한, 군사화 된 미국정책 반대하고 국방 예산을 줄이기 위한 활동, 군축, 인간안보를 위한 활동에 매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평화와 갈등연구소 에마 레슬리 사무총장은 아시아 평화 프로세스의 가능성과 방향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그는 국제적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전통적인 중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기중심주의를 지양하고 진중하게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여성주의적 중재와 평화구축모델을 제시하였다.

경기여성단체연합 문지은 사무국장은 경기도 '평화' 의제 확장판의 기대라는 주제로 발제하

였는데 그는 지역 평화운동의 방향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주요 시점마다 '여성이 왜 거기서 나오느냐'가 아니라 '여성이 함께 해야 한다'로 진전된 이야기가 '평화'의제에 담길 때 남북대치상황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일상의 경험이 평화와 통일의 의제에서 함께 다뤄지고 논의될 수 있다고 하였다.

국제여성자유평화연맹 글로벌 프로그램 총괄 마리아 버틀러는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는 국제적 연대 활동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그는 여성의 평화운동은 현실 정치의 대안을 제공한다고 하였으며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WIPF(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여성연맹)에서 전 세계 여성의 비폭력 투쟁에 경의를 표하였다. 또한, 과거의 여성들을 본받아 비폭력, 다자주의, 지역사회를 중심에 둔 중재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새롭게 하고 군사주의에 대응해 기후변화와 관련내용에 대해 말하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조영숙 소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여성평화 이니셔티브와 함께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제로 발제하였는데 그는 국제사회는 분쟁과정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복구와 분쟁예방 및 평화정착 과정에서 여성의 리더십과 참여가 평화해결과정의 모든 단계와 영역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유엔안보리가 결의한 여성평화안보 1325결의안의 원칙대로 추동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경기 여성평화이니셔티브를 소개하였다.

이후 참가자들은 발제자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였다.

안 사무총장에게는 한미정상회담 코리아피스활동 국제사회에서 여성들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방법의 제안이나 전략에 대해 질문하였다. 안 사무총장은 바이든은 평화 우선주의를 취하려는 것 같으며 여성들이 최전선에 나서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답하며 백신을 언급했는데 이 부분은 여성주의적으로 평가받을 이야기로 보였다.

경기도에게는 향후 어떤 정책을 제안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조영숙 소장은 유엔 안보리에 결의한 분쟁과 관련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회복 평화프로세스에 여성을 참여시키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문지은 사무국장은 여성이 정책의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 행정적 기반 조례를 마련 중이며 행정부서 안에서 발의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특히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했으며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 질문은 현재 다양한 여성연대가 필요한 시점인데 이런 측면에서 한국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연대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레슬리 사무총장은 젊은 여성들은 세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며 하면서 여성들이 참여가 필요하며 중요한 것은 함께 해 나아가는 것이라 하였다. 버틀러는 국제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STOP KILLER ROBOT CAMPAIGN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군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는데 군사주의의 경우 자율무기가 있는데 사용하면 안 된다며 무기의 위험성 인간의 생존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말하였다. 이재광 부지사는 한반도의 평화구축은 여성이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하는것에 동의하며 이에 대한 평화관련 부서의 여성책임자를 두고 있는 것을 강조하면서, 경기도가 앞으로 이러한 노력을 하겠다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2021 DMZ 포럼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2021.5.21(금) ~ 22(토) | www.dmzforum.or.kr

[특별세션 Ⅲ : 풀뿌리로부터 국제연대까지, 여성들의 평화를 위한 노력과 제안]

반준호 평화공공외교협력단

2021 DMZ 포럼은 5월 21일 금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이틀간 코로나 19의 영향을 온 라인으로 진행되었다. DMZ 포럼에서의 여러 세션 중에서 특별 세션Ⅲ '풀뿌리로부터 국제 연대까지 여성들의 평화를 위한 노력과 제안'에 참가하였다.

'풀뿌리로부터 국제연대까지, 여성들의 평화를 위한 노력과 제안'이라는 주제로 5월 22일 14 시부터 약 1시간 20분 동안 조영미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께서 좌장을 맡으시고 크리스틴 안 위민크로스디엠지 사무총장, 바바리 리 미국 하원의원, 문지은 경기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조영숙 대한민국 양성평등 대사, 에마 레슬리 평화와 갈등 연구소 사무총장, 마리아 버틀리 국제여성자유평화연맹 글로벌 프로그램 총괄께서 발제를 맡아주셨고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께서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을 하였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노력과 역할

조영미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새로운 평화 협력을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 국제 사회, 국제적 단체들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어서 크리스틴 안 위민크로스디엠지 사무총장은 여성의 평화 구축 노력은 실현 가능하고 실용성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평화 협정을 맺으면 가장 효과적인 한반도의 평화 노력이 될 것이고 포괄적 평화 협정은 여성의 노력이 없이 불가능하다. 실제 여성들의 평화를 위한 활동들은 미 의회 여성의원들의 노력이 실질적인 보고서와 발의안 등으로 구형되고 있다. 한국 전쟁 종식을 위한 노력을 미국 전역에서 풀뿌리로부터 계속해왔고 미국 국민에게 한반도가 아직 전쟁 중이라는 사실은 알리고 있다. 한반도의 긴장과 분단은 특히 여성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 예로는 북한 개성 공단 폐쇄는 그 속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그대로 피해가 간다. 이처럼 한반도의 평화는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여성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확인했다.

. 지역 사회, 대한민국에서 여성들의 평화를 위한 노력

문지은 경기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은 북한과 접경을 맞대고 있는 경기도가 지역 사회 내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아쉬운 점으로 평화, 통일 정책에 여성의 참여와 역할이 저조하다는 점을 제시하였고 평화 운동에 대한 여성의 참여와 역할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영숙 대한민국 양성평등 대사는 여성의 평화 운동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앞으로 여성의 리더십과 적극적인 참여가 평화 구축의 모든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쟁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를 전쟁 범죄 중 하나로 유엔 안정보장이 사회에서 규정하고 피해자를 위한 지원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한민국 지역 사회의 여성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여성의 평화 안보의 원칙은 분쟁 전, 중, 후 모든 사회적 정책적 차원에서 여성의 참여가 보편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대한민국의 여성 평화 운동이 전 세계에서 선도적이며 진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성 평화 운동가의 노력을 우리 정부와 지역 사회의 펴와 프로세스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전 세계적인 여성의 평화 운동 참여와 노력

바바리 리 미국 하원의원은 한국 전쟁의 종전은 53년에 진행하기로 약속되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전쟁은 지속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또한 군사비의 증가는 반대하고 이러한 군사비는 그 외 필요한 복지, 주택 등과 같은 분야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여러 젊은 여성 활동가와 함께 활동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에미 레슬리 평화와 갈등 연구소 사무총장은 21세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젊은 여성 운동가들의 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여성의 참여에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북한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고 경험하면서 서로 간의 이해를 높이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고 오랜 세월 동안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가 힘을 합쳐 공동의 노력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리아 버틀러 국제여성자유평화연맹 글로벌 프로그램 총괄은 여성의 평화 운동을 현실 정치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많은 나라에서 여성들의 어려움과 현실을 잘 알고 여성의 평화 구축 역할을 공고히 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전쟁을 지속하고 계속하는 것은 구조적 폭력으로부터 우리 중 누구도 보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사회의 여러 구조적 사회적 어려움은 여성에게 더욱 취약하고 코로나 19 또한 여성들의 어려움을 가중한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등하게 백신과 같은 복지를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운동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세션을 마치면서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한반도 평화 구축에 여성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경기도의 평화 정책에 있어서 현재도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초극적 차원에서의 여성들이 한국 전쟁 해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 '평화는 정치적이고 현실적이다.'라는 말에 공감한다는 말을 끝으로 2021 DMZ 포럼 특별세션Ⅲ을 마무리 하였다.